

관광객-여행자 이분법 넘기*

오정준**

Beyond the Dichotomy of Tourist-Traveller*

Jeongjoon Oh**

요약 : 과거의 여행은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여행의 민주화 이후 여행을 매개로 한 여행 엘리트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고, 그들의 배타적 여행 장소는 점진적으로 개방되었다. 이때부터 관광에 대한 편견이 시작되었고, 관광객에 대한 사회 및 공간적 구별이 나타났다. 오늘날 계급은 사라졌지만, 관광의 세계에는 편견이 만연하고 있다. 학문적 지식이 권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관광객-여행자의 이분법이 형성되었고, 이는 여행자 담론으로 순환되었다. 그 결과 관광에 대한 편견은 물론이고 관광객에 대한 사회 및 공간적 구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행(혹은 관광)은 자신만의 기대를 만끽하는 사회 및 공간적 실천으로서, 그 누구도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곳도 폄하의 장소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나서는 관광객이자 여행자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견은 사라져야 하며, 관광객-여행자 이분법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주요어 : 여행, 관광, 관광객-여행자 이분법, 편견, 구별, 여행자 담론

Abstract : In the past, traveling was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elite. However,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travel, the exclusive status of elites mediated by travel has disappeared, and their spaces have gradually opened up. This led to a prejudice against tourism, and social and spatial distinctions for tourists. Classes may have disappeared, but the world of tourism is still dominated by prejudices. As academic knowledge acts as power, the tourist-traveller dichotomy was formed, which in turn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traveller discourse. As a result, a prejudice against tourism still exists, and social and spatial distinction against tourist also still exists. However, travel (or tourism) is a social and spatial practice that enjoys its own expectations, and no one can be a subject of contempt, and no place can be a place of disparagement, because we are all tourists and travelers who go their own way. The prejudice must therefore be eliminated, and the traveller-tourist dichotomy also should be rejected.

Key Words : Travel, Tourism, Tourist-traveller dichotomy, Prejudice, Distinction, Traveller discourse

I. 서론

‘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이다. 여행은 현지 문화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관광은 그 반대이다.’

-189개국을 여행한 포르투갈 사진작가-¹⁾

여행자는 자신을 여행자로 설정한다. 타인이나 기관에 의한 설정이 아닌, 전적으로 주관적 설정이다. 즉 ‘자기 인증’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관광객과 거리 두기 위함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무리에 섞이지 않는 여행자로 포장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관광객과 분리한다. 이러한 자기 이미지(self-image) 설정은 객관성을 요구받는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정욕구가 발동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jeongjoony@naver.com)

한다. 그래서 자기 인증은 여행자 담론의 실천 및 재현으로 이어진다. 여행자 원형을 방문지에서 실천하고, 그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혹은 SNS)에서 재현한다. 실천에 비해 재현은 더욱 이상형에 가깝다. 글의 내용은 관광학 원론 교과서를 필사한 것 같고, 오히려 영웅담에 가깝다. 발길 드문 원시적 장소를 방문하고, 위험과 모험으로 채워진 여정을 극복하며,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아가 재현된다. 흡사 중세의 순례자와 다름없다. 반대로 관광객을 표현하는 그들의 언어 수위는 날카롭고, 냉소적이다. 위에서 언급된 포르투갈 사진작가의 진술은 여행자의 이상형을 재현한 ‘자기 인증’의 전형이다.

그러나 자기 인증에 상관없이, 여행자는 무리와 구분되지 않는다. 공항, 비행기, 거리, 관광 장소에서 여행자와 관광객을 구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흥대 입구 방문객을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 온 회사원, 광주에서 온 대학생, 일본 신혼 여행객, 중국인 한류 추종자, 미국 배낭여행자, 한국 주둔 미군 장병, 한국 체류 외국인 강사, 강 건너 나들이 온 강남구민을 관광객과 여행자로 일견 구분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관광객, 여행자, 혹은 여가 목적의 일일 방문객을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지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은 모두 방문객일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지 주민이 여행자를 관광객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그들의 행동 강령은 이상적일 뿐, 현실상에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여행자와 관광객에 관한 현지인의 진술에 잘 나타난다.

‘여행자는 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중략)...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일부 여행자들은 훌륭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며, 매우 무례하다. (관광객들은) 잘 조직되었기에, (이곳을) 많이 파괴하지 않는다. 여행자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 ...(중략)...나는 관광객을 선호한다. 특정한 장소에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자는 통제 불능이다. 그들은 준비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고, 그 새로운 곳을 망치고, 한 푼의 돈도 쓰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현지 가이드-²⁾

더 나아가 여행자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양적 팽창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현지의 진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발길 닿지 않는 장소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 역시 대중적 관광 장소로 빠르게 변모된다. 이때, 대안적 여행자를 위한 안내 책자는 양적 팽창의 매개가 된다. 배낭여행자의 바이블인 론리플래닛(Lonely Planet)이 미지의 세계를 상업화된 배낭 여행지로 바꾸고, 더 나아가 대량의 방문객을 유도하는 또 다른 동인으로 연결된다는 비판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Azariah, 2016). 론리플래닛은 대중 관광의 양적 팽창을 매개한 베데커(Baedeker)와 다름이 없다.³⁾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현지 주민조차 시도하지 않는 구분을 여행자는 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방문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사한데, 여행자는 왜 배낭, 생태, 문화, 녹색 등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여행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가? 여행자 담론의 흥위병이 되어 관광객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행자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누구도 지난 휴가에 관광을 다녀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한다. 집을 떠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을 여행자로 포장하고 있고, 관광객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이들을 이상적으로 만들었는가?

이 연구는 앞선 의문들이 관광객-여행자 이분법에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여행의 역사에서 나타난 계급적 편견이 관광객과 여행자를 구별하는 논의에 석화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포드주의 관광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포스트모던 관점이 이를 증폭하고, 더 나아가 관광 및 여행을 현상이 아닌 사업 및 경제적 접근으로 몰두한 관광 연구의 한계가 여행자와 관광객의 고정 관념을 배가시켰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편견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악명 높은 관광객-여행자 이분법에 대한 고정적 관념을 탈피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객-여행자 이분법을 해체하려고 노력하는 영미권의 인문 지리 및 사회과학 저술을 조사 및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편견의 역사를 파악하고, 이분법의 형성 과정과 순환 과정을 추적하며, 더 나아가 관광(혹은 여행)의 새로운 의미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편견의 역사

과거의 여행은 모험이었다(Boorstin, 1964). 여정은 고단했고, 잠자리는 불편했다. 비용은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위험하며, 때론 고독하기조차 했다. 그래서 여행(travel)

의 어원이 고난(travail)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모험의 효과는 경이적이었다. 흠볼트는 유럽의 지성이 되었고, 그런 흠볼트를 추종한 다윈은 종의 기원을 저술했다(권정화, 2005). 그랜드 투어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은 교양과 지식을 쌓았고, 그 무리의 한 명인 바이런은 '여행의 신'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설혜심, 2013).

그러나 여행의 모습은 19세기부터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철도교통의 발달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호텔 등의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신기술을 융합한 쿡(Cook)의 패키지 상품이 등장했다. 여정은 수월해졌고, 비용은 낮아졌으며, 귀가는 보장되었다(Lash and Urry, 1994). 안전하고 저렴한 쿡의 여행 상품은 계급과 성을 초월하여 제공되었다(Urry, 1990). 그로 말미암아 여행 엘리트들은 여행을 매개로 한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아야만 했고, 배타적 여행 장소는 점진적으로 개방되었다. 이른바 여행의 민주화(democratisation of travel)가 이루어졌다(Urry and Larsen, 2011).

일부 중간 계급이 존재했지만, 민주화의 주류는 노동 계급이었다. 노동 생산성 향상, 복지, 교화 등의 이유로 여가의 정례화, 철야 주간(wakes weeks)의 도입, 유급 휴가 등이 19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장은 동시에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도시의 불량한 거주 및 노동환경을 벗어나 자연을 방문했다(Urry and Larsen, 2011). 그들은 엘리트들이 전유해왔던 산, 호수, 전원, 폭포 등의 숭고한 경관에 침투했는데, 낭만주의라는 동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계급에 상관없이 여행 장소의 중첩이 이루어졌다.

엘리트와 노동 계급의 경험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엘리트들은 경관을 혼자서, 혹은 극소수의 지인과 바라보는 개별성을 강조했고, 노동 계급은 조합 등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집단성을 강조했다. Urry의 용어를 빌리자면, 엘리트들은 낭만적 시선(romantic gaze), 노동 계급은 집단적 시선(collective gaze)으로 대상을 응시했다(Urry, 1990). 낭만주의 시(詩)로 무장한 엘리트는 경관과 장소에 관한 문학적 영감을 얻고자 했고(심승희, 2000), 여행안내 책자를 읽고 온 노동 계급은 낭만주의적 고독보다는 동반자와의 함께함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동일 여행 장소에서 나타나는 경험 방식의 차이는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같은 장소를 바라보는 것은 축제, 혹은 운동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Urry and Larsen, 2011), 노동 해방감을 만끽한 채, 여행 장소를 방문한 노동 계급은 더욱 활기차고,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개별성을 강조하는 엘리트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 계급의 집단성 및 그들의 떠들썩한 분위기는 이해 못 할 장면이었다.

엘리트들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불평이 제기되었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 한 명의 농부, 개울가에 있는 한 명의 어부, 들뜬에 있는 한 명의 양치기 등, 이러한 각각의 개별 개체는 그림 같은 경관(picturesque)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한 무리의 집단은 고요함과 평온을 깨는 침입자 혹은 방해 요소에 불과했다(Löfgren, 1999). 즉, 개별성은 인정되었지만, 동질적인 집단성은 부정되었다. 침입자로 인해 낭만주의의 전형적 장소였던 레이크 디스트릭트, 나이아가라 폭포, 이탈리아의 목가적 경관 등은 고독의 감정을 전달할 수 없게 되었다. 1865년 스코틀랜드의 한 작가가 '이탈리아는 동물의 무리로 점령당했고, 무리의 앞, 혹은 뒤에는 무리의 감독자가 양치기 개처럼 무리를 인솔했다'라고 표현했듯이,⁴⁾ 노동 계급을 위시하여 민주화 이후에 출현한 대량의 여행자들은 동물의 무리로 표현되었고,⁵⁾ 동시에 비난받았다.

불만과 불평은 구별의 전략, 즉 거리 두기의 전략으로 이어졌다. 엘리트들은 능동적 모험을 추구하지 않고 안전한 모험을 즐기는 사람을 투어(tour), 관광객(tour-ist), 관람(sightseeing)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불렀다(Boorstin, 1964). 물론 앞선 용어는 여행의 민주화 이전에 등장했고, 이미 경멸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더 큰 짜증과 경멸을 불러일으켰다. 안전한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대량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의 특성이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몇몇 영국인들은 여행 설계자인 쿡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다. 그가 여행자의 주도권과 모험심을 앗아감으로써 교양 없는 사람들이 경관을 마구 어지럽혔다는 것이다(Boorstin, 1964). 또한 관광객을 폄훼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다. 자신은 지식, 교양, 호기심, 생기발랄함을 갖춘 독립적 여행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미덕이 불충분한 관광객이라고 규정지었다(설혜심, 2013).

또 다른 전략은 공간을 매개로 한 구별이다. 왕족, 귀족 등의 상류 계층은 새로운 침입자에게 주저 없이 자리를 양보했다. 그들은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은 물론이고 호텔을 리스할 필요가 없었다. 경제적 자본이 충분했던 그들은 자신만의 이동 수단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배의 일등석 혹은 다른 나라 귀족의 저택이나 별장을 이용하면 그만이었다. 프라이버시 및 독점에 대한 비용지불 능력이 있었기에 새로운 여행 장소를 찾아 움직였다. 그들은 관광객의 대량 유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Löfgren, 1999).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영국의 해안 리조트에서 잘 나타난다. 해변으로의 휴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영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휴가 형태였는데(Urry and Larsen, 2011), 그 시작은 왕족이 주도했고, 대표적 장소는 런던 인근의 브라이튼(Brighton)이었다. 왕족을 비롯한 상류층은 본연의 방문 목적인 해수(욕) 치료와 함께, 콘서트, 무도회, 산책 등을 즐기므로써 이곳을 사교 목적의 작은 런던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9세기 철도 보급으로 인해 브라이튼은 중간 계급은 물론이고 노동자 계급까지 방문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일반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 때문에 이곳을 매년 방문하는 왕실의 전통은 1845년에 폐기되었다. 비슷한 이유로 상류층 역시 방문 시기를 가을, 혹은 겨울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대중과의 만남을 회피했다(Williams, 1998). 계급에 따른 공간적 구별은 영국의 해변 리조트들이 저마다의 사회적 기풍(social tone)을 갖는 장소로 발전하도록 유도했고, 그 결과 상류층이 찾는 리조트와 대중들이 찾는 리조트로 각각 발전했다. 이러한 리조트 계층(resort hierarchy)의 형성으로 인해 대중이 방문하는 특정 장소는 폼피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Urry and Larsen, 2011).

문제는 중간 계급이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자본을 획득한 중간 계급은 상류층의 휴가를 모방했고(Williams, 1998), 노동 계급의 휴가를 거부했다. 상류층의 개별성을 지향하고, 노동 계급의 집단성을 지양한 것이다. 그랜드 투어와 픽처레스크(picturesque)에 대한 추구가 그러했고, 해안 리조트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상류층은 중간 계급과 노동 계급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점에서 양자 모두 자신들의 배타적 장소를 침입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 계급은 상류층과 문화적으로 공존했지만, 공간적으로 공존할 수 없었다. 중간 계급을 바라보는 노동 계급의 시선 역시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다. 노동 계급은 중산층들이 춤, 노래, 장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격식에 매몰된 점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노동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중산층들은 불안한, 그리고 과잉 통제된 구경꾼들에 불과했다(Löfgren,

1999).⁶⁾

20세기에 접어들자 관광은 대중 관광(mass tourism)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대중이라는 용어가 대량의 의미와 함께 엘리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도 읽힐 수 있듯이, 대중 관광은 계급, 인종, 국가를 초월하여 예전에 비해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보편적 여가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설혜심, 2013). 어디론가 떠나지 않는 것은 마치 차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된 것처럼(Feifer, 1985), 관광은 현대적 생활의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Urry, 1990). 그러나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전의 계급적 편견은 민족 및 국가로 확대되었고, 현지 주민의 편견까지 추가되었다. 이는 대중 관광의 독특한 개발방식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대중 관광 개발의 주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들은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소수의 편중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미지 제작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관광자원을 홍보 및 판촉한다. 20세기 후반 북미와 유럽의 이미지 제작자들은 해변을 낙원으로, 야생을 목가적인 농촌으로 각각 포장했고(Shaw and Williams, 1994), 심지어 초현실적인 테마파크조차 자신들의 미래로 포장했다.⁷⁾ 대중이 방문해야 할 장소가 이미지 제작자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는 다시 관광객 시선 및 관광객의 마음 경관(mindscape)으로 구축됨으로써 방문의 동인(動因)이 되었다(Shaw and Williams, 1994). 그러나 이미지로 제작된 해변은 상상의 낙원일 뿐이다. 현실의 해변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관련 없는 가짜로 채워지고, 획일적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지중해 관광 상품은 그리스, 스페인, 터키의 지역성(혹은 국가성)에 상관없이 건축물, 편의시설, 오락, 음식 제공 등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고(Shaw and Williams, 1994), 해변의 모래는 수입품으로 채워졌다. 해변 낙원을 상징하는 야자수는 태평양 일대에서 자생하지만, 여느 해변 관광지에서 이를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중해의 리비에라(Riviera)와 제주도의 야자수는 옮겨 심은 가짜에 불과하다. 지식과 안목으로 무장한 엘리트의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가짜로 채워진 해변 관광지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 채, 이를 무비판적 태로 소비하기 위해 방문하는 대중 관광객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대중 관광 개발에 따른 관광 장소의 공간적 편중

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개발업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그러한 장소의 이미지를 내면화한 관광객은 단기간에 걸쳐 방문했다. 개발 방식이 장소 선택의 범위를 축소한 셈이다. 그 결과 방문 장소의 수용력은 한계에 봉착했고, 환경 및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었다. 공간적 편중에 따른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 것이다(Shaw and Williams, 1994). 따라서 지역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개발업자 및 외부로 유출되고,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오정준, 2004). 비록 부정적 측면의 관광 영향은 개발방식으로 비롯되었지만, 억울하게도 관광객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되었고, 이후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대중 관광에 대한 편견은 새로운 구별의 전략으로 이어졌다. 이는 19세기 엘리트들이 구사했던 사회 및 공간적 거리 두기와 매우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편견의 주체가 신중단계급으로 대체된 것이다. 부르디외는 문화 소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두 가지 계급 분파를 제시했는데, 하나가 새로운 부르주아지(new bourgeoisie)이고, 다른 하나가 신중단계급(new petit bourgeoisie)이다(Bourdieu, 1984, Mowforth and Munt, 2009에서 재인용). 전자는 경제적 자본 및 문화적 자본을 모두 갖춘 계급으로서, 일각에선 나이가 많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생태관광객으로 간주했고, 또 다른 일각에선 음식에 비유하여 미식 관광객(gastronomic tourist)으로 정의하였다(Errington and Gewertz, 1989, Mowforth and Munt, 2009에서 재인용). 이들은 문화적 자본을 통해 자신의 취향이 구현되는 새로운 관광을 추구했으며, 경제적 자본을 통해 배타적 장소를 방문했다. 고가의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가 선박, 비행기, 헬리콥터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모빌리티 역량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적 자원을 독점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계급 분파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혹은 전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역시 문제는 신중단계급이었다. 그들은 문화적 자본은 소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다시 말해 특정 소비 유형의 문화적 의미를 읽는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모빌리티 역량 및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세

련된 관광객 미식가(sophisticated tourist gourmets)와 일반적 휴가 대식가(common vacation gourmands) 사이에 놓여 있었다(Löfgren, 1999). 애매한 위치였다. 부르디외가 문화적 취향은 계급의 표지라고 말한 것처럼(Bourdieu, 1984), 모든 사회 계급은 직업, 교육, 소비 및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을 통해 그들 자신을 다른 계급으로부터 구별 짓기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고, 여행은 이러한 차별화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Mowforth and Munt, 2009). 따라서 상류층(생태관광객)과 노동 계급(패키지 관광객)으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해야만 하는 그들의 투쟁은 다른 계급에 비해 더 무겁게 다가왔다. 차별화를 위해 상류층으로부터는 스스로 열외 및 탈퇴했고, 노동 계급으로부터는 대안적인 것을 강조했다(Mowforth and Munt, 2009).

신중단계급이 채택한 구별 전략은 사회적, 공간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서 자기 인증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먼 거리, 힘든 지역(오지)으로의 공간적 거리 두기가 대표적이다. 공간을 매개로 한 구별은 대중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소, 즉 현지의 진정한 자연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로의 방문이다. 모우포스와 문트가 명명한 저가 관광객(eco-tourist), 즉 선진국의 중간 계급인 그들은 트럭(overland tour trucking) 혹은 도보(backpacking)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오지를 방문한다(Mowforth and Munt, 2009). 이른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난 장소(off-the-beaten-track)로의 방문이다. 이러한 장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위치재(positional goods)로 작용했고, 문화적, 상징적 지위를 보여주는 재화가 되었다(조광익, 2006). 먼 거리가 구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위험으로 가득 찬 오지 방문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급의 가장자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선이나 표면 주위를 진동하는 불꽃 같은 역동적 과정이듯이(Bourdieu, 1984, Mowforth and Munt, 2009에서 재인용), 관광 장소 역시 급속하게 변화한다. 대표적 예로 프랑스의 리비에라가 있다. 이곳은 그랜드 투어가 대중화되자 19세기 엘리트들이 새롭게 모색한 대안적 방문지였다. 1870년에 이곳은 유럽의 왕족과 귀족이 찾는 방문지였지만, 세기가 바뀌면서 전형적인 대중적 관광지로 변모되었다(Löfgren, 1999).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먼 거리의 장소는 개방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미지의 장소는 짧은 순간에 낯익은 장소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중간 계급은 후속해서 침입하는 집단과 계속 마주해야 했고, 자신의 기호 가치(sign-value)를 구현할 수 있는 장소를 관광객과 공유해야 했다.

관광 공간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자본만으로 공간을 전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류층처럼 자가용 비행기(혹은 비행기의 일등석)나 자가 별장(혹은 호텔이나 리조트의 독립적인 호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공항, 비행기, 호텔 등의 관광 공간에서 대중적 관광객과 항시 마주할 수밖에 없다(Weaver, 2001, Vainikka, 2014에서 재인용). 같은 방문 지역 내에서 양자의 활동 반경은 필연적으로 중첩될 수밖에 없고, 축제 등의 이벤트에서도 항시 마주해야 했다. 도시 생태학으로 은유하자면 상류층은 새로운 서식지로 이주한 것이고, 중간 계급은 동일 서식지에서 새로운 인종과 경쟁해야만 했다.

경쟁의 결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타인 혹은 다른 계급의 직업, 교육, 소비, 거주 등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어려워도 다른 계급이 행하는 여행을 비난하는 것은 쉽사리 목격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광 장소 혹은 공간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직업, 교육, 소비, 거주는 분리될 수 있어도 단기간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여행 공간은 분리가 어렵다. 따라서 중간 계급은 비행기, 배, 공항, 거리, 해변 등에서 관광객을 마주할 때마다 비난에 열을 올린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뢰프그렌은 중간 계급이 여행지에서 아마추어 사회학자로 변신한다고 주장했다. 해변이나 광장의 카페에서 주변의 관광객을 관찰 및 논평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저녁에는 이를 동반자들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계급 간의 긴장이 국가와 민족으로 옮겨지는 것에 주목했다. 화려한 점프슈트를 착용한 북유럽 부부에 대해 화를 내거나 논평하는 이유를 중간 계급의 가치관으로 간주했다.⁸⁾ 중간 계급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모방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는 인격체로 나타나야 하는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질성이 중간 계급을 자극한다고 그는 지적했다(Löfgren, 1999).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단체 사진을 찍는 관광객에 대한 인식,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등산(outdoor)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외국인들의 논평과 공명한다.

공간적 거리 두기의 한계를 인지한 상황에서 중간 계

급이 채택한 전략이 타자화이다. 이는 관광객들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들으로써 그들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부각하는 전략이다. 자신은 문화적 자본을 통해 특정 장소를 진정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문화적 자본의 부재로 인해 피상적 경험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강조한다. 개인주의는 '어떤 종류의 관광인가?'를 둘러싼 전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자신들을 저예산 여행자로 규정하면서,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실천은 환경이나 사회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Mowforth and Munt, 2009). 생태관광의 예를 들자면, 자신들은 생태를 감상할 수 있는 지식, 안목 등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개인으로 여행하기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만, 대중 관광객들은 생태적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피상적 경험에 그치고 있고, 집단으로 방문하기에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타자화의 세부 전략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관광객을 천박함의 상징 및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상징하고, 다음으로 여행자를 진정함의 상징과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관광객이 아닌 여행자로 자기 설정하고, 재현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포르투갈의 사진작가는 물론이고,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다. 계급에 상관없이 타자화로 시작된 자기 인증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III. 이분법의 형성과 순환

편견은 계급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학문적 지식에 의해 강화 및 고착되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도출된 학문적 지식은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인용되고, 일반인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며,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면서 실체로서 힘을 갖는다(주은선, 2022). 관광객에 관한 지식이 그러했다. 대중 관광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의 초창기 연구는 관광객과 여행자를 각각 부정 및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봤고, 이는 인용의 순환을 거치면서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까지 그 힘을 발휘했다. 학문적 지식의 보급은 관광객에 관한 사고의 틀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고착시켰고, 편견의 역사에 영양분을 공급했으며, 여행자 담론 완성에 일조했다. 이

장에서는 여행자-관광객 이분법을 형성 및 강화한 학문적 지식을 파악하고, 초기의 연구 관점을 반복하는 관광학 연구의 특징, 마지막으로 그것이 여행자 담론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분법의 형성

관광과 여행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학문적 접근은 사회과학계가 주도하는 문화적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관광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려는 시도였고, 시작은 부어스틴이 주도했다. 그는 대중 관광이 한참 성장하던 1960년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광을 가짜 사건(pseudo event)이라고 규정했다(Boorstin, 1964). 그에 의하면 관광은 사전에 인지한 대상의 이미지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끔 특별히 고안된 사건으로서, 진짜 같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이고, 거짓인 사건이다. 예를 들어 원주민 문화 탐방은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관리됨으로써 원시적 공격성은 안전하게 순화되고, 저렴해야 하며, 관광객의 사진 찍기에 편리해야 하고, 시간 없는 관광객들을 위해 단시간에 구성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은 고가의 비용을 치르고, 위험을 감수하고, 오랜 시간을 투여한 과거 여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Boorstin, 1964), 이를 추구하는 관광객은 시간과 자본이 충분치 않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공연하게 관광을 비판했고, 암묵적으로 여행을 칭송했다. 따라서 그의 저서에서 관광객에 대한 조롱 및 혐오적 관점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심승희, 2000).

문화적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 의해 강화되었다. 포스트모던 연구자들은 먼저 포드주의에 기반한 대중 관광을 비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것의 경직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객 소비가 생산의 구속적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Vainikka, 2014).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객은 표준화된 패키지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자(Urry, 2002),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는 모험심 없는 여행자로 고려되었다. 관광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전의 가치 있는 장소를 열등한 장소로 전락시키며(Butler, 1990; Shaw and Williams, 1994), 지역을 표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Cohen, 1972, Vainikka,

2014에서 재인용), 지역의 문화 및 환경까지 파괴하는 공공의 적으로 묘사되었다.

포스트모던 연구자들은 기존의 대중 관광을 비판적 시선으로 응시했지만, 새롭게 나타난 세분화된 형태의 여행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대안관광, 신관광, 연성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관광 등이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관광의 공급과 소비 방식이 기존 관광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⁹⁾ 생산자가 다변화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유연적 공급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생산의 구속적 권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러한 시장을 주도하는 주축 세력이 지식과 안목을 갖춘 신중단계급(new middle class)이기에 여행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Munt, 1994). 대중 관광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중단계급을 상정하고, 더 나아가 고전적 여행의 후계자로 인정한 것이다.

포스트모던 연구자들은 개발방식, 생산 및 소비 방식, 장소의 특성 등의 항목을 가지고 기존의 관광과 새로운 관광을 대비시켰고, 이를 통해 양자 간의 이분법적 도식을 완성했다. 이 도식으로 말미암아 관광은 대중 관광, 근대적 관광, 포드주의 관광과 등식으로, 여행은 대안관광, 탈근대적 관광, 탈포드주의적 관광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초기 도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학자는 크리펜도르프이다.¹⁰⁾ 그는 기존 관광을 경성 관광(hard tourism)으로, 그리고 새로운 관광을 연성관광(soft tourism)으로 명명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대비한 비교표를 제시했다(표 1). 이후 이 표는 연구자들에게 자주, 그리고 유용하게 인용됨으로써 여행과 관광이 각각 선(the

표 1. 크리펜도르프의 비교표

경성 관광의 관광객	연성 관광의 여행자
집단	개인
광경(sight) 추구	경험 추구
현지 지식 없음	현지 지식 있음(사전 학습)
현지어 못함	현지어 습득
편안함, 수동적	모험적, 능동적
고정된 여정	즉흥적 여정
소란스러움	조용함
스냅 사진(카메라), 포스트 카드	사진(전문 카메라), 그림(그리기)
기념품(구매)	추억(쌓기)
단기간	장기간

출처 : Krippendorf(1982)의 내용을 재구성함.

good)과 악(the bad)의 이분법적 구조로 양분되는데 일조했다(Lane, 1989, Clarke, 1997에서 재인용).

폰 역시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기존의 관광과 새로운 관광을 대비하여 설명했다. 그녀는 대중 관광을 오래된 것으로, 그리고 대안적인 형태의 여행을 새로운 것으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곧 사라지고, 후자는 점차 발전한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오래된 관광(혹은 구관광)과 새로운 관광(혹은 신관광)을 타자기와 컴퓨터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고, 이를 각각 추구하는 관광객을 표 2와 같이 제시했다(Poon, 1993).

‘타자기 시장이 계속되는 동안 새 컴퓨터의 성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타자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의 힘에 노출된 사용자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정확한 논리는 오래된 관광(old tourism)과 새로운 관광(new tourism)에 모두 적용된다(Poon, 1993).’

두 학자의 논의구조는 단순한 이분법에 근거했지만, 후속 학자들에게 이론적 정초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구조를 다수의 관광 관련 문헌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에 의한 지속적 인용은 관광 및 여행에 대한 정의를 고착하기에 충분했는데, Vainikka(2014)는 이를 두고 결정론적 담론(deterministic discourse)이라고 명명했다. 물론 관광(혹은 관광객)을 재개념화하는 시도들 또한 부단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광을 다양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고려하는 시도로서,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한 접근이다.¹¹⁾ 바니카는 이러한 접근에 입각한 연구가 유연한 담론(flexible discourse)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Vainikka, 2014).

표 2. 폰의 비교표

오래된 관광객	새로운 관광객
태양에 대한 추구	새로움에 대한 추구
대중을 따름	(개인으로) 책임지는
오늘은 여기에, 내일은 떠남 (현지에 대한) 우월 의식	보고 즐김, 그러나 파괴하지 않음 (현지에 대한) 이해
명소 선호 (수동적) 반응	스포츠와 자연을 선호 (능동적) 모험
호텔에서의 식사	현지에서의 식사
동질적	혼종적

출처 : Poon(1993)의 내용을 재구성함.

유연한 담론에 입각한다면 대안적인 생태 여행은 양적 증가를 거듭하면서 대중적인 관광으로 변화할 수 있고, 거꾸로 대중 관광은 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¹²⁾ 따라서 대중 관광과 새로운 관광의 관계는 반드시 이분법적일 필요가 없으며, 양자의 특징을 채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Honkanen, 2004, Vainikka, 2014에서 재인용). 그러나 유연적 담론에 해당하는 연구는 이분법적 구도를 표방하는 연구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산업적 관점을 내면화한 관광 연구가 초기에 도출된 핵심 이론가의 개념을 반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이고, 결정론적 범주의 연구가 여행자 담론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후속하는 절에서는 결정론적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구축된 배경을 관광학 연구의 특성 및 여행자 담론의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2. 관광학 연구의 특성과 이분법의 강화

관광 연구의 주체는 크게 두 개로 양분되어 있다. 하나가 앞서 언급했던 사회과학계이고, 다른 하나가 관광학계이다(Trible, 2010, 윤혜진·조광익, 2022에서 재인용).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광학계는 빠르게 성장했고,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물을 생산했다.¹³⁾ 발전의 속도와 정도가 경이적이기에 관광과 관광 연구 중 어느 것이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Franklin and Grang, 2001). 그러나 단기간에 걸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향성에 대한 의문점이 부단히 제기되고 있다. 연구 내용이 사업 지향적 혹은 실무적 성향을 보여주고, 방법론이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연구 방법에만 의지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김사현, 2008; 변우희 등, 2008; 윤혜진·조광익, 2022). 즉, 학문의 기본이 되는 개념 및 이론의 정립은 간과한 채, 정량화된 경험적 연구의 반복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의 기본 골조인 서론을 생략한 채, 본론과 결론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김사현, 2008).

이것의 원인은 관광학계가 현실에서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을 지향하는 데 있다(김사현, 2008). 수많은 경험적 연구의 양산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부재하고, 더 나아가 개념 정립 혹은 기존 개념의 재개념화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향성은 신랄한 비판과 마주한다. 이론 구축 기여에 실

패한 현장 연구의 확산(Cohen, 1995, Franklin and Crang, 2001에서 재인용), 부차적, 주변적, 시문적, 비학문적, 진지하지 못한, 변두리 학문(김사현, 2008), 이론 없는 사례 연구, 학술적 연구가 아닌 특정 분야에 대한 논의, 실무 사례, 일회성 사례 연구(Tribe, 2010, 윤혜진·김철원, 2013에서 재인용), 과학 이전, 패러다임 이전의 단계(Echtner and Jamal, 1997, 변우희 등, 2008에서 재인용), 새롭지 않고, 진부하며, 반복적이며, 생기 없는 연구(Franklin and Crang, 2001) 등은 관광학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 제기된 비판의 핵심 골자이다.

플랭크린과 크랑은 관광학 연구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관광에 관한 고정된 해석 방식(frame)이다. 이는 관광 연구가 고정된 틀과 시각을 통해 현상을 응시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관광을 노동의 일시적 의례로 간주했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별적인 현지 이벤트로 여전히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고려한다면, 관광 장소는 여전히 외부 힘에 종속된 고립 지역이고, 관광은 출발, 도착, 활동, 귀가의 개별적 발생에 불과하고, 관광객은 남성성의 이익을 영원히 극대화하며, 동시에 합리적 경제인의 개인화된 화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Inglist, 2000, Franklin and Crang, 2001에서 재인용).

그러나 관광은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관광은 세계화의 양상이자, 모빌리티 및 감정이 복잡하게 묶여 있는 현상이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면서(Franklin and Crang, 2001), 한정된 시간 및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관광객이 된다는 어리의 주장은 이제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Urry, 2002). 따라서 관광을 근대적 사회의 부산물, 즉 노동의 극대화를 위한 보상으로 간주할 수 없고, 생산, 구조, 노동과 대비되는 사소한 현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이벤트로 고려할 수 없다.

관광학계의 고정된 해석방식은 관광객을 너무나 쉽게 규정 및 정의했고, 그 결과 관광객 유형론(typology)의 범람으로 이어졌다. 물론 유형론이 유용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류를 통해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론은 이론을 형성할 수 없고, 또한 가설의 설정 및 검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영복, 2000). 아쉽게도 관광 연구는 그렇지 못했다. 많은 수의

연구자들은 관광객을 범주화, 목록화하는 데에만 주력했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오로지 유형화의 범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로프텐은 이를 두고 분류 광풍(the craze for classification)이라고 표현했고(Löfgren, 1999), 플랭크린과 크랑은 그것의 원인을 정책 및 이해당사자의 전폭적인 후원이라고 주장했다(Franklin and Crang, 2001).

일반적으로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needs)과 원하는 것(wants)을 파악하는 것이다.¹⁴⁾ 관광 부문으로 고려하자면, 관광객의 유형별 특징을 구체화함으로써 유형에 따른 관광객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Shaw and Williams, 1994). 관광기업 및 지역 정책 입안자는 관광객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연구자들에게 발주하는데, 용역 수행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산업 및 정책적 관점을 내면화한 유형론 연구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Franklin and Crang, 2001).

코헨이 제시한 관광객 유형은 관광학계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분류이다.¹⁵⁾ 그는 친숙함(familiarity)과 신기함(novelty)에 대한 욕구를 관광객의 수요와 관련시켜서 조직적 대중 관광객, 개인적 대중 관광객, 탐험가, 방랑자의 네 가지 관광객 유형을 제시했다(Cohen, 1972, 한국관광학회, 2009에서 재인용). 친숙함을 추구할수록 조직적 대중 관광객에 가깝고, 신기함을 추구할수록 방랑자에 가깝다는 것이 코헨의 주장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을 통해 업계는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관광객의 수요는 업계의 바램처럼 고정되지 않는다. 다수의 이유로 관광객은 친숙함과 신기함의 네 가지 유형을 넘나든다. 예를 들어 문화 지리학자가 여행을 통해 숙박과 항공권을 예약하여 현장 연구를 진행한다면 개인적 대중 관광객이지만, 자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숙박 및 항공권을 예약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다면 탐험가가 될 것이며, 더 많은 참여관찰을 위해 현지인의 집에서 1년 넘게 거주한다면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답사를 진행할 때, 한 무리의 조직적 대중 관광객이 되어 그곳을 재방문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일 여정 속에서도 친숙함과 신기함을 수시로 넘나들 수 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관광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연구자의 오만이자, 업계의 오판이다. 로프텐

의 주장처럼 마케팅 연구 및 과학적 라벨링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적 야망 사이의 불행한 결합이다(Löfgren, 1999).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관심사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선택과 폐기를 무한하게 반복한다. 즉, 휴가 중의 행동은 관람, 쇼핑, 오락과 같은 관광객의 대표 행동과 함께 체험, 산책, 독서 같은 여행자의 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폐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주, 고성방가, 폭음 등의 요란한 정신 상태를 추구할 수 있고, 사색과 성찰 등의 고요한 정신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 즉, 다양한 활동 및 상반된 정신 상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Löfgren, 1999). 그러나 유형학은 복잡다단한 관광객의 심리상태와 행동을 단편적으로 분류하고, 고정적으로 해석한다. 로프텐의 말을 빌리자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회학과 상상력 부족한 심리학의 전통을 대표하는 것이다(Löfgren, 1999). 그리고 이러한 유형학은 여행자와 관광객의 구분을 심화시킨다.

두 번째 문제점은 관광 연구 집단의 특성이다. 관광이 역동적으로 변화했기에 이러한 변화를 탐구하는 집단 역시 상대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학문적 배경은 사회 및 문화 이론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관광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문화 및 사회적 과정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사례 연구들에 대한 방대한 결과물만 남기고 있다. 즉, 관광이라는 엄청난 확장을 단순히 추적하고, 기록하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Franklin and Crang, 2001).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연구가 정책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향을 따른 연구 결과물이 관례화되어서 반복된다는 데 있다.

정책의 명령을 따르거나 관례화된 연구 결과물을 추구하는 연구자에 상관없이, 개념 정립 및 재정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는다. 실무적, 실용적 해결책을 단기간에 제출해야 하고,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연구의 관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인접 학문에 의지하고, 소수의 핵심 이론가 제시한 견해를 반복하여 인용한다. 즉, ‘복사하여 붙이는’ 작업이 전개된다. 소수의 개념은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은 후속되는 사례 연구에서 끝없이 반복된다(Mowforth and Munt, 2009).¹⁶⁾ 앞서 언급한 부어스틴, 크리펜도르프, 폰이 대표적 핵심 이론가이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바로 ‘복사하여 붙이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혹은 아이디어는 대부분 오래전에 개발되었지만, 현재도 부단하게 차용되고 있다. 국제관광객

이 1억 명이었던 시기에 도출된 개념이 14억 명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활용된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관광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와 가짜, 관광과 일상, 게스트와 호스트, 대중과 대안 등의 이분법적 논의를 통해 작금의 관광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중 관광 개념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 바니카는 대중 관광의 개념화에 관한 글이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광 연구자들이 대중 관광을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Vainikka, 2014). 즉 자체적 연구로 대중 관광을 재개념화하지 않고, 과거에 도출된 핵심 이론가의 개념을 인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연구자들이 과거의 분석틀에 얽매어서 대중 관광을 너무나 자명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Vainikka, 2014).

관광 연구의 이러한 경향을 두고 행판(型板)에 얽매인 연구(Morris, 1988, Franklin and Crang, 2001에서 재인용), 석화(石化)된 표준적 설명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정초주의를 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Franklin and Crang, 2001). 소수의 핵심적 이론가에 의해 도출된 개념은 여전히 관광 담론의 지배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결정론적 담론이다(Vainikka, 2014).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여행자 담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3. 이분법의 순환

관광객·여행자 이분법은 전문적 여행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전문적 여행사는 대중적인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여행사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부터 상이하다. 주 고객은 젊고, 모험심 있으며, 경제적 자본이 불충분한 개인 여행자이다. 모우포스와 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자아 관광객(ego-tourist)에 해당한다(Mowforth and Munt, 2009). 전문적 여행사는 또한 전문 여행가를 가이드(혹은 리더)로 고용한다.¹⁷⁾ 그들은 방문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 대한 학문적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로서, 여행자의 리더이자 멘토이며 동시에 중간 계급의 휴가 경험을 구현 및 지도한다(Mowforth and Munt, 2009).

전문 여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여행자 담론에 기초하

여 자신들의 상품을 제작, 홍보, 판매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관광객들로부터 자신의 회사 투어에 참여하는 여행자를 구분한다. 거리 두기가 극대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품은 아우라를 생성하고, 궁극적으로 여행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기에 일반적 여행사를 향한 언어의 수위는 거칠고, 자신들의 상품은 대비적인 수식어로 포장한다(Mowforth and Munt, 2009). 경직, 평범, 전통 등은 일반적 여행사의 상품을, 대안, 개별, 비패키지 등은 자신의 상품을 표현하는 대표적 수사들이다. 이러한 전문적 여행사의 구분을 두고 모우포스와 문트는 '사악한 구별'이라고 표현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행자의 자질과 실천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여행자의 자질과 실천, 혹은 이와 대비되는 관광객의 특성이 앞서 언급한 핵심 이론가의 대비표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이 제시한 비교표(표 2)를 전문적 여행사의 홍보 책자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Mowforth and Munt, 2009). 더 나아가 전문적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제시하는 핵심적 지침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것 역시 크리펜도르프 등이 제시한 대비표와 매우 유사하다.

여행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신의 여행을 합법화하기 위해 여행사의 담론을 내면화하고, 동시에 관광객과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여행자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명확히 말로 표현하기 위해 관광객-여행자를 구분하는 전투에 참여한다. 위크는 자신을 스스로 여행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블로그 텍스트를 조사함으로써, 여행자의 타자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Week, 2012). '자기 인증'하는 여행자의

재현에는 공통점이 존재했는데, 관광객을 타자화시키고, 자신을 관광객과 분리된 존재로 정의했다. 그래서 관광객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모험을 추구하는 과거 여행의 후계자로 자체 설정했다. 다시 말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관광 상품을 소비하며,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수동적 관람자이자,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근대성을 거부하고,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며, 모험을 즐기며, 관광으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여행자로 포장한다(Week, 2012). 표 4는 여행자가 정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이는 표 1, 표 2, 표 3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핵심 이론가가 제시한 내용이 부단한 순환을 거치면서 여행자의 차별화에 도달한 것이다. 즉, 초기에 생성된 재현이 계속해서 현상을 형성하는 모양새이다.

국내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책, 블로그, SNS,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자기 인증 및 타자화를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행은 그냥 떠나는 것, 관광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것'¹⁸⁾, '남들이 평화롭게 가는 관광 지 말고, 혼자 아프리카에 가는 것, 그래서 당신이 가는 건 관광, 내가 가는 건 여행'¹⁹⁾ 등, 이러한 계몽적인 어휘와 차별적인 표현은 모든 매체에서 차고 넘친다. 여행자를 넘어 일반인들조차 여행과 관광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는 ○○을 관광했어'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을 여행했어'라고 재현한다.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잘못된 표현으로 간주한다. '신혼 관광'은 '신혼 여행'의 오타이고, '배낭 관광'은 '배낭 여행'의 잘못된 표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은 여행자의 자기 포장과 다르게 나타난다.²⁰⁾ 위크는 여행자가 관광객보다 못한 경제적 혜택을

표 3. 전문적 여행사가 제시한 비교표

관광	여행
침입, 약탈, 해일, 오염, 동물의 폐	발견, 탐색, 이해, 평화로운 접촉
대표적 장소: 스페인 베니도름, 스페인 토레몰리노스, 그리스 코스	대표적 장소: 과테말라 티칼, 캄보디아 프놈펜, 탄자니아 잔지바르
태양, 모래, 바다, 섶스: 4S	분별, 민감, 정교, 지능적, 독립적, 이상주의적, 호기심 많음
모험심이 없음, 편협함, 분별력 없음, 활력 없음, 경험 없음, 상상력 없음, 지능 없음, 지루함, 비현실적, 가짜	모험심이 강함, 마음 넓음, 분별력 있음, 활력 있음, 경험 풍부, 상상력 풍부, 대담함, 현실적, 진정성

출처 : Mowforth and Munt(2009)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4. 여행자에 의해 정의된 관광객과 여행자의 특성

관광객	여행자
근대적 생활의 일부로서 관광을 수용	근대성 거부
편안함, 즐거운 휴식, 재미 추구	진정성 추구
제공된 목적지 방문	정해진 경로 탈피
관광객 공간에서의 생활	현지 생활에 몰입
현지 문화 무시	현지 문화 존중
방문지를 포착하기 위한 카메라 사용	과시적 카메라 사용의 자제
풍요로운 생활	검소한 생활
짧은 휴가	긴 여정

출처 : Week(2012)의 내용을 재구성함.

안겨주고, 대중 관광보다 지역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관광 영향의 범위를 확대하며,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을 내면화하면서 지역을 하대(下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행이 특정 계급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Week, 2012). 여행자는 부양 및 노동의 의무가 없이 장시간 동안 여행이 가능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독신자이자 건강한 신체적 능력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개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이들은 서구(혹은 선진국) 특정 계급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위크는 여행자가 관광객을 더 큰 강도로 비판하는 이유가 여행자의 기호 가치를 구현하는 장소로 관광객이 점점 더 침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타자화의 근본 목적이 계급적 편견에 기인한 공간적 배제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주장하였다(Week, 2012).

관광에 대한 편견은 포스트모던 학자들의 논의구조를 내면화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정책의 명령에 입각한 관광학 연구로 인해 고정된 사고가 유지, 반복되었고, 이는 여행자 담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따라서 여행자가 자체 정의한 여행자 특성은 크리펜도르프 및 폰의 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관광객에 대한 비판 수위는 학자의 그것보다 더욱 날카롭다. 이는 가치중립성을 지향하는 학자의 견해에 여행자의 주관성이 가미된 것이다. 여행자의 주장은 계급의 관점을 내면화한 결과로써, 여행의 민주화 이후 엘리트들이 제기했던 구별과 공명한다(Butcher, 2003, Week, 2012에서 재인용). 편견은 200년을 뛰어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IV. 이분법을 넘어서

프랑스 사회학자 위르뱅(Jean-Didier Urbain)은 관광객 경험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하나는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주인공인 포그(Fogg)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주인공인 로빈슨(Robinson) 방식이다(Urbain, 1994, Löfgren, 1999에서 재인용). 포그 방식은 흡사 원작 소설의 주인공처럼 여행한다. 모험적 요소를 가진 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시야를 넓혀 무언가 배우기를 갈구하는, 호기심 많은 활기찬 여행자이다(Bærenholdt *et al.*, 2004). 이 방식은 여행의 고전적 방

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계몽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며, 만보객(flâneur) 성향을 갖고 있다. 또한 시각 중심적이면서 탈체화된 장소 경험을 추구한다(Bærenholdt *et al.*, 2004). 따라서 포그 방식은 중간 계급의 가치와 공명한다(Löfgren, 1999).

후자 역시 소설의 주인공 같이 행동한다. 미지의 섬에 표류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일상의 평범함에 대한 유토피아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집(혹은 일상)이다(Löfgren, 1999). 집은 안식처이자, 안정한 영역으로서, 친숙함과 친밀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구속감도 줄 수 있다. 따라서 집을 벗어나는 것은 매일의 책무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기에 그 어떤 것도 즐거움으로 승화될 수 있고, 집을 나서는 여행은 그 자체로서, 혹은 여행지에서의(일상의) 평범한 실천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근대적 가족의 여행은 더욱 그러하다. 가족 구성원의 시공간 테이블이 상이하기에 집을 나서고, 귀가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 그러기에 각자의 식사와 수면 시간이 다르고 집안에서의 임무도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은 집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조차 완전체가 되지 못한 채, 오직 개별 개체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여행에서는 다르다. 하나로 묶인 사회체가 된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개별 활동은 유예되고, 단일한 가족여행 계획표만 존재한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에서도 그들은 한 묶음이고, 관광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며, 같이 식사하고, 같이 행동한다. 일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함께함이 달성된다. 더 나아가 그들은 친밀감을 추구한다. 이상적인 가족을 염원하기에 가족간의 다름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오정준, 2020). 가족 사진 수행은 가장 결정적 순간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의 프레임에 빠짐없이 포함되고, 더 나아가 밝은 미소와 다정한 자세(pose)를 취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거부하는 가족 구성원도 존재하지만, 사진 제작자는 현재와 미래의 관객을 위해서,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이상적 가족 이미지를 생산한다. 가족의 함께함과 친밀함이 사진을 통해 완성된다(오정준, 2015).

또한 가족은 '함께함'을 위해 부분적 고품을 선택한다. 따라서 현지 주민 혹은 다른 여행객과 접촉이 제한된 가족 공간이 일시적으로 창출된다. 별장, 펜션 등의 독립적인 단독 가옥 및 캠핑카, 차박이 가능한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그곳에서 가족은 일상의 평범함을 실천한다.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색다른 활동도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산책하며, 놀이를 즐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상에서 하지 못한 함께함을 실천하기 위함이다(오정준, 2020). 라르손이 '가족들은 집을 떠나왔을 때, 종종 집에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듯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Larsen, 2004).

한편 가족의 실천 및 수행은 그들이 머무는 장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머무는 곳이 경멸의 장소라 할지라도 가족은 수행을 통해 그곳을 함께함 및 친밀함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변은 여행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여행의 민주화 이후 차별 및 편하의 공간으로 전락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시야를 넓히고, 모험을 즐기는 포그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해변은 배움이 없고, 식사하고, 쾌락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은 포스트모던 연구와 공명한다. 포스트모던 연구는 해변을 대중관광의 대표적 특성, 즉 3S(sun, sand, sea)가 강하게 내포된 장소로 사유한다. 여행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해변을 경멸의 장소로 사유한다.

앞서 언급한 관점과 인식은 해변의 기호 가치(sign-value)만 중시한 결과이다. 언어와 담론을 통해 해변을 고정된 견해로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해변을 이미 주어진 기호 가치로만 사유하는 것은 죽은 지리학(dead geography)에 지나지 않는다(Larsen, 2004). 관점을 달리하여 해변의 사용 가치(use-valu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¹⁾ 그렇다고 해서 기호 가치를 완전히 폐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출발선상으로 삼은 채 사용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재현과 수행을 양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Edensor, 2001).

일상의 평범함에 대한 유토피아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해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변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Bærenholdt *et al.*, 2004). 기존 의미대로 쓰여질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로 새롭게 써나갈 수 있다. 즉, 장소 신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장소 신화를 동요시킬 수 있다.²²⁾ 이러한 측면에서 로빈슨식 탐색은 공간의 체화된 사용 및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Bærenholdt *et al.*, 2004). 아래에서 제시된 인터뷰 내용은 로빈슨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아침 해수욕에 상기되어 있었다. 해변에서 종일 해수욕하고, 모래성을 쌓고, 흥함을 모은다. 모래에서 뛰논 아이들은 해변에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 집으로 걸어가서 돌과 조개껍데기로 집을 꾸미고 아이들과 함께 카드를 썼다.’

-자녀들과 해변을 방문한 독일 여성의 일기.²³⁾

여행은 새로운 것을 찾아, 보고, 학습하며, 자아를 발견하는 시도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므로써 세상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탐색일 수 있다. 전자는 포그의 관점이고, 후자는 로빈슨의 그것이다. 양자 모두 휴가에 관한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내포한다. 그러나 어디를 가야하고, 무엇을 봐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규범을 제안하는 중간 계급의 관점은 여행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대안적 이해를 차단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Löfgren, 1999).

중간 계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광버스와 대형 유람선과 같은 관광 공간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규범으로 고려할 때, 무리의 때로 뒤덮여 있는 공간일 뿐이다. 그러나 개인으로 여행하지 않고, 배낭을 들지 않고, 무언가를 학습하지 않으며, 시끄럽다고 해서 그들과 그들이 위치하는 공간을 편취할 순 없다. 편하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유람선에만 머무르거나 단지 항구 근처 지역을 잠깐 둘러볼 때, 그러한 공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한 무리의 인파 속에서 함께함을 이룰 수 있고, 시끄러운 엔진 소리 속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장소를 새롭게 창조하고, 유람선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유람선은 관광객을 명소로 실어 나르는 기능을 넘어선다. 실천과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유람선은 그 자체로서 매력물(attraction)이 될 수 있다(Löfgren, 1999). 여행의 세계는 중간 계급의 언어와 담론으로 구성된 기호로 가득 차 있지만, 꼭 그것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유람선과 관광버스라는 기호 가치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람선과 관광버스는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다.

여행(혹은 관광)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다양하다. 배낭을 짊어진 오지 여행가일 수 있고, 자연경관을 답사 및

탐구하는 아마추어 생태학자가 될 수 있다. 때론 일가친척의 해외여행을 계획 및 진행하는 가이드일 수 있고, 자동차 여행의 운전대를 책임지고, 캠핑 여행의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옴로족으로 살면서 탐험을 즐기는 진정한 여행가가 될 수 있고, 결혼 후에 어린 자녀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그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 부모가 될 수 있다. 진정성을 추구하던 여행가 시기에는 해변을 경멸의 공간으로 사유했지만, 결혼 후의 다시 찾은 해변은 가족의 친밀함 및 함께함을 달성시켜주는 유토피아로 인식될 수 있다. 즉 해변이 가지고 있는 기호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수행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행(혹은 관광)은 문화적 실험실(cultural laboratory)이다(Löfgren, 1999). 여행을 통해 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실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욕구가 성취되는 비현실적 세계를 염원할 수 있다. 여행은 저마다의 문화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이자, 자신만의 판타지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실천이 되는 활동무대이다(Löfgren, 1999). 따라서 그 누구도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곳도 폄하의 공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나서는 관광객이자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V. 결론

과거의 여행은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다. 즉, 상류 계급 지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여행의 민주화 이후 여행은 보편화되었고, 배타적 공간은 개방되었다. 엘리트의 불평 및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는 다시 구별과 편견으로 이어졌다. 비록 가시적인 계급은 사라졌지만, 편견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학문적 지식과의 연계에 기인한다. 학문적 지식이 권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관광객-여행자의 이분법이 힘을 얻었고, 학계는 물론이고 여행자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²⁴⁾ 관광의 양상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폄하되고 있고, 반대로 여행은 다수의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것으로 추앙받고 있다.

작금의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이다. 수입, 직업, 학력, 문화적 수준 등의 기준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

지만, 가시적으로 구분된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광에서는 계급의 전통에서 유래된 타자화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이를 내면화한 재현이 순환된다.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들과 거리 두려고 투쟁하고 있다. 관광의 세계는 여전히 계급적 차이가 만연하고 있다(Crick, 1989, Mowforth and Munt, 2009에서 재인용).

어느 순간부터 여행자들은 여행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망각했다. 여행은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고,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고,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관광객을 비평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방문지에서 이상적 여행자 행동을 추구하는 데 지나친 열정을 투여한다. 이는 지난 200년에 걸쳐서 행해진 관광객-여행자의 악명높은 이분법의 결과이다.

관광은 무시의 대상이 아니며, 여행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관광과 여행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동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저마다의 이미지와 판타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떠나고, 경험하며, 추억하는 경험이다. 일상과 구분되었지만, 일상의 평범함과 연계되어 있고, 색다른 곳을 방문하지만, 일상의 루틴을 자신의 수하물처럼 가져가는 행위이다. 따라서 마치 우리가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근대성의 유산인 관광과 여행의 이분법을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 즐거움을 찾기 위한 관광 혹은 여행의 세계에서 계급의 유산은 사라져야 한다.

註

- 1) Week(2012)의 연구에 수록된 인터뷰 내용임.
- 2) Wheat(1994)의 연구에 수록된 인터뷰 내용임 (Mowforth and Munt, 2009에서 재인용).
- 3) 론리플래닛과 베테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지은(2019)을 참고할 것.
- 4) Butcher(2003)의 연구에 수록된 내용임(Week, 2012에서 재인용).
- 5) 관광객은 ‘동물의 무리(herds, flocks, droves, packs, swarms)’로 비유되거나(Löfgren, 1999), 동물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해로운 동물 가운데 가장 최악은 관광객’이라는 표현이 1870년

- 대에 제기되기도 했다(설혜심, 2013).
- 6) 애매한 입장의 중간 계급은 때론 그들만의 대안적 공간을 형성했다. 19세기 중반 영국 해변 별장(bungalow)은 대표적 예이다. 이는 비교적 고독한 상태로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독립가옥이자, 그것의 집합체로 형성된 일군의 촌락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숙박 시설에 대한 중간 계급의 수요가 증가한 결과이다(Urry and Larsen, 2011).
 - 7) 미국인들은 디즈니랜드에서 제시되는 미래의 모습을 자신들의 미래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석희 율김(1995)을 참조할 것.
 - 8) 점프슈트(Jump suit)는 상의와 하의가 동일 색상이나 패턴으로 연결된 원피스형 슈트를 말한다. 북유럽인들이 여행에서 주로 착용한다.
 - 9) 포드주의에 입각한 관광은 생산자 중심적이지만, 탈포드주의 관광은 소비자 중심적이다(Lash and Urry, 1994)
 - 10) 사실 크리펜도르프는 대중 관광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다기보다는 대중 관광을 하나의 발전과정으로 고려했고, 새롭게 나타난 관광을 대중 관광의 파생 형태라고 간주했다(Clarke, 1997). 그러나 후속 학자들의 선택적 수용으로 말미암아 대중 관광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소 왜곡되었다.
 - 11) 이것의 대표적 예는 Feifer(1985)의 탈관광객(post-tourist)이다. 탈관광객은 원주민 마을을 방문해서 전통춤을 구경할 때, 그들이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원시인이 아니고, 더 나아가 전시되는 춤이 전통적이라기보다는 방문객을 위해 꾸며진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 비록 가짜 관광 상품이 전시되고 공연되더라도, 그 진위를 따지지 않은 채 관광 상품을 즐겁게 소비하는 게 탈관광객의 특징이다. 따라서 탈관광객은 고도로 자기 인식적이며,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광객이다(Feifer, 1985).
 - 12) 관리되지 않은 생태관광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잘 관리된 대중 관광이 오히려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정준(2004)을 참고할 것.
 - 13) 1973년 최초의 관광 저널이 창간된 이래 최근까지 50개 이상 증가하였고, CABI 초록 서비스에 '관광'이라는 표제 아래 기록된 항목은 5만 개 정도로 검색된다. 아마존(Amazon) 도서 목록 중 '관광'이

- 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도 7,500종 이상이다(Tribe, 2009; 윤희진·조광익, 2022에서 재인용).
- 14) 학문명백과의 내용을 참고함.
 - 15) 그는 사회학자이고, '정책의 명령'에 따른 연구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의 업적은 후속하는 관광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16) 물론 개념에 대한 반박도 제기된다. 그러나 사례 연구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뿐,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Mowforth and Munt, 2009).
 - 17) 전문적 여행사의 가이드는 여행 경험이 풍부한 국제 여행자이다. 그들의 여행 경험은 하나의 이력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전문적인 여행사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의 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으로 승화된 것이다(Mowforth and Munt, 2009).
 - 18) 이용근(2005)에서 발췌함.
 - 19) 공중파 예능(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한 한 여행자(10년 동안 43개국 방문)의 인터뷰 내용임.
 - 20) 기대와 현실은 다르게 나타난다. 오정준(2004)은 대안적 관광객이 방문하는 생태관광지가 대중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비해 더욱 빠르게, 철저하게 파괴되는 사실을 제주도를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 21) 기호 가치 및 사용 가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Haldrup and Larsen(2010)을 참고할 것.
 - 22) 수행적 관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오정준(2015)을 참고할 것.
 - 23) Bærenholdt *et al.*(2004)의 연구에 수록된 내용임.
 - 24) 지리학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리학 및 지리교육 연구물에서 관광객-여행자 이분법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소수의 연구만이 이분법에 대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한지은(2019)의 美麗한 논문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경환(2018)은 관광-여행의 이분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분법 폐기의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영복, 2000, 「사회학 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권정화, 2005, 「지리 사상사 강의 노트」, 서울: 한울

- 김사현, 2008, “관광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회고와 과제” 한국관광학회 제64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초록집, 19-33.
- 박경환, 2018, “포스트 식민 여행기 읽기-권력, 욕망 그리고 재현의 공간,” 문화역사지리, 30(2), 1-27.
- 박석희 옮김, 1995, 「테마파크의 비밀」, 서울: 일신사.
- 변우희·조광익·김기태·한상현, 2008, “관광학 연구 동향 및 교육과정 분석과 ‘관광학 총론’의 구성 체계” 관광학연구, 32(4), 35-53.
- 설혜심, 2013, 「그랜드 투어」,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심승희, 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강진·해남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혜진·김철원, 2013, “관광 현상에 대한 이론 개발고찰” 관광학연구, 37(10), 11-32
- 윤혜진·조광익, 2022, “관광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을 위한 일고” 관광학연구 46(6), 13-35.
- 오정준, 2004, 「지속 가능한 관광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 오정준, 2015, “재현과 수행으로서의 관광객 사진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0(2), 217-237.
- 오정준, 2020, “관광과 일상의 결합에 관한 소고” 경제지리학회지, 24(1), 14-28.
- 이용근, 2005, 「여행박사 깨비짱의 21세기@ 나 홀로 여행」, 서울: 사이버여행아카데미.
- 조광익, 2006, 「현대 관광과 문화 이론-푸코의 권력이론과 부르디외의 문화적 갈등이론」, 서울: 일신사.
- 주은선, 2022, “지식과 권력” 보건사회연구, 42(2), 5-6.
- 한국관광학회, 2009, 「55인의 관광학 전문인이 집필한 관광학총론」, 서울: 백산출판사.
- 한지음, 2019, “익숙한 관광과 낯선 여행의 길잡이-서구의 여행안내서와 여행(관광)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1(2), 43-59.
- Azariah, D.R., 2016, The traveler as author: Examining self-presentation and discourse in the (self) published travel blog, *Media, Culture & Society*, 38(6), 934-945
- Baerenholdt, J., Haldrup, M., Larsen, J., and Urry, J., 2004, *Performing Tourist Places*, London: Ashgate.
- Boorstin, D., 1964, *The Image*, Harper & Row(정태철 옮김, 2004, 「이미지와 환상」, 서울: 세계절).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최종철 옮김, 1995, 「구별 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 Butler, R.W., 1990, Alternative tourism: Pious hope or trojan hors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3), 40-45.
- Clarke, J., 1997, A framework of approaches to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5(3), 224-233.
- Edensor, T., 2001, Performing tourism, staging tourism: (Re)producing tourist space and practice, *Tourist Studies*, 1(1), 59-81.
- Feifer, M., 1985, *Going Places*, London: Macmillan,
- Franklin, A. and Crang, M., 2001, The trouble with tourism and travel theory?, *Tourist Studies*, 1(1), 5-22.
- Haldrup, M. and Larsen, J., 2010, *Tourism, Performance and the Everyday-Consuming the Orient*, London: Routledge.
- Krippendorf, J., 1982, Towards new tourism policies, *Tourism Management*, September, 135-148.
- Larsen, J., 2004, *Performing Tourist Photography*, Ph.D. Dissertation, Roskilde University.
- Lash, S. and Urry, J., 1994,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박형준·권기돈 역, 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서울: 현대미학사).
- Löfgren, O., 1999, *On Holida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Mowforth, M. and I. Munt, 2009, *Tourism and Sustainability*, London: Routledge.
- Munt, I., 1994, The other postmodern tourism: Travel, culture and the new middle clas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1(3), 101-24.
- Poon, A., 1993, *Tourism, Technology and Competitive Strategies*, New York: CAB International.
- Shaw, G. and Williams, A., 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London: Blackwell(이영희·김양자 옮김, 2008, 「관광 지리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Urry, J., 1990, *Tourism Gaze*, London: Sage.

- Urry, J., 2002, *Tourism Gaze(2nd edition)*, London: Sage.
- Urry, J. and Larsen, J., 2011, *Tourism Gaze 3.0*, London: Sage.
- Vainikka, V., 2014, Rethinking mass tourism, *Tourist Studies*, 14(3), 261-285.
- Week, L., 2012, I am not a tourist: Aims and implications of traveling, *Tourist Studies*, 12(2), 186-203.
- Williams, S., 1998, *Tourism Geography*, London: Routledge
(신용석·정선희 옮김, 1999, 「현대 관광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 아카데미).

교신 : 오정준,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jeongjoony@naver.com)

Correspondence: Jeongjoon Oh, 38453, 201, Daegudae-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Email: jeongjoony@naver.com)

투고접수일: 2023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23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8일

